

5월 5·18광장에서 인권과 평화의 멜로디 울려 퍼진다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주제 '너의 오월을 들려줘'
31일까지 저녁 90분 동안
가수 김원중 등 55팀 무대

44년전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함성이 펼쳐졌던 5·18민주광장에 5월 한 달간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사단법인 오월음악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2024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너의 오월을 들려줘'를 매일 저녁 시간대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5월 한 달 동안(1일, 2일, 4일, 17일, 18일, 25일 제외)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30분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되며 전국에서 초청된 55여팀, 400여명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함께 한다.

지난 3일 열린 첫 무대에는 5·18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오월어머니집' 소속 어머니들과 오월정신을 계승

하는 '주먹밥 노래단', '승리연주단', 통일을 꿈꾸고 노래하는 가수 '김원중'이 공연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화&우물안개구리, 정용주&오월의 봄, 제4집단&이광배는 '어깨 거는 사람들'을 주제로 각각 13일, 23일, 29일 시민들과 만난다.

소뉴·김거봉·히비스밴드·소영&라운더스·부에나 모멘토·광주노동자노래패·베리아이리쉬·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광주 팀들도 오월광장을 채운다.

전국 단위 공연팀들도 광주를 찾는다. 박성훈·손현숙(with 이기쁨)·지민주·이썬·문진오·노래벗·아이씨밴드·손병휘·이지상·미미&마리아·김현성·하림·고니·아카펠라 노래숲·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빛나는 청춘'·희망새 등이다.

11일 5·18청소년오케스트라와 오월뮤지컬 비망의 '너의 오월을 응원해' 무대에 이어 19일 푸른솔합창단·흥사단합창단·1987합창단·일본 일어서라합창단의 '오월한일교류음악회', 24일 소금인형·홍조



사단법인 오월음악이 주최하는 2024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너의 오월을 들려줘'를 주제로 5월 한 달간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2022년 공연 모습. 사단법인 오월음악 제공

x한스의 '사월에 만나는 오월, 오월에 만나는 사월' 무대다.

한 달간의 공연은 5월 31일 오월어머니들과 주먹밥노래단, 오월노래단과 가수 류의남, 승리연주단으로 구성된 기획공연단의 폐막공연 'Band of May'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음악회와 별개로 25일에는 오월창작가요제를 연다.

박성인 오월음악 총감독은 "매년 5월 다양한 5·18민주항쟁 기념행사들 중 첫 문을 여는 음악회로,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 방문객들에게도 오월 정신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유튜브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월의 노래'는 1980년 이후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열린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 행사다. 지난 2015년 5월 다시 시작돼 이후 해마다 5월이면 시민군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별관 앞을 지키며 오월을 노래해 왔다.

도선인 기자



지난해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수상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세계 뮤지션 광주 동구로... 제3회 버스킹 월드컵

흥행 청신호 58국 781팀 접수
예선경쟁률 전년 대비 2배 상승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경연 참가팀 모집 결과 국내·외 총 58개국 781팀(2143명)이 참가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대비 모집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 경쟁률이 12대1에서 24대1로 두 배 상승한 수치로,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세계 최대 버스킹 음악축제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번 경연에는 에스토니아, 영국뿐만 아니라 짐바브웨, 튀르키예, 쿠바 등 세계 58개 나라에서 다채로운 개성과 음악성을 지닌 뮤지션들이 참가했다. 참가국은 지난해보다 3개국이 증가했다.

재단은 본선 진출 32팀 선발을 위해 유수의 국제 음악축제 예술감독과 국내·외 음악산업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예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예술성·독창성·참신성·무대 매너 등으로, 참가신청 시 제출한 영상을 심사위원단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선 진출팀은 오는 31일

버스킹 월드컵 누리집(buskingworldcup.com)을 통해 발표한다. 선발된 본선 진출 32팀은 오는 10월 5·18민주광장 일원의 3개 무대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경연을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총 상금은 1억원으로 1위인 '골든버스킹상'에는 상금 5000만원, 2위 '실버버스킹상' 2000만원, 3등 '브론즈버스킹상' 1000만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기상' 100만원 등 총 9개팀이 수상한다.

문창현 재단 대표이사는 "거리 음악가뿐만 아니라 유명 밴드까지 폭넓게 지원했다는 점에서 올해 버스킹 월드컵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뮤지션들이 동구에서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국제 버스킹 음악축제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제21회 광주 추어의 중장축제와 동일기간 개최한다. 올해는 버스킹 경연뿐만 아니라 국제 음악산업 컨퍼런스, 아시아 쇼케이스 등 다양한 음악 이벤트가 함께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가슴에 맺힌 오월어머니의 삶을 노래하다"

ACC '오월어머니의 노래'
25일 예술극장 극장1 공연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오월어머니들의 삶을 담은 노래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오월정신을 계승하고자 '오월어머니의 노래' 광주공연을 오는 25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진행한다.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의 40여 년의 한을 노래로 승화한 공연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 온 열다섯 어머니들의 가슴속 문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월어머니들이 직접 참여, 뜻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다.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지난 2022년 서울, 부산, 광주 순회공연을 통해 전 국민과 함께 오월가치를 나누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는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관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제주(4·3사건), 광주(5·18민주화운동), 서울(6·10항쟁)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주, 광주, 서울지역에서 세 차례 열린다.

첫 공연은 오는 15일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되며, 오는 25일 ACC 예술극장 극장1과 6월 1일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차례로 열린다.

공연에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가족을 가슴에 묻고 청춘을 던진 오월어머니 15명이 출연한다. 공연은 1부 '망월의 노래', 2부 '오월의 노래'로 구성돼 있으며, 오월어머니들이 각각의 사연으로 만든 노

래를 들려준다.

특히 올해 공연에서는 오월가족들이 오월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로 이어지는 아픔을 함께 노래한다.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혜 씨가 낭독배우로 참여하고 지역 예술인 및 단체가 함께 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연 영상은 ACC 공식 유튜브와 오마이 TV를 통해 방송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음악으로 만나는 오월이야기를 통해 오월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민주·인권·평화 가치가 우리 일상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주·인권·평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박노식 시화전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무는 일'

14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 박노식 시인의 첫 시화집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무는 일' 전시를 오는 14일까지 연다.

박노식 시인이 꽃말 시를 쓰고 그 시를 토대로 화가 김상연이 그림을 그렸다. 이들은 다른 공간,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인연으로 만나 그 공간의 애뜻한 감정을 공유하며 전시를 꾸렸다. 화가 김상연은 이

번 시화집에서 박 시인의 시를 자신만의 느낌으로 해석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냈다.

2015년 쉰셋의 나이에 등단한 박 시인은 첫 시화집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무는 일(달아실)'을 출간했다.

그는 2015년 '화순 장을 다녀와서' 외 4편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시집 '고개 속인 모든 것', '시인은 외톨이처럼', '마음 밖의 풍경', '길에서 만난 눈송이처럼' 등을 펴냈으며 2018년에는 아르

코문학창작기금을 받았다. 현재는 화순군 한천면 오지에서 시 창작에 몰두하며 '시인 문병란의 집'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김 화가는 이번 전시에서 박 시인의 시를 자신만의 느낌으로 해석해 그림을 그렸다. 그는 현대미술을 본인만의 시각방법으로 회화, 설치, 미디어, 판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복합전시 공간으로 남구 제중로에 있다. 도선인 기자

Logo for '全南日報 @jnlibo' with social media handles and a QR code.